

10만 '소녀'들, 하얀 우비 입고 웃고 울었다

공연 10시간 전부터 흰색 우비 점령
아침마다 된 소녀들…팬심은 여전해
문화준 “17년만에 공연 팬들께 죄송”
강타 “영원히 함께!” 완전체 시사도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은 현실
이 됐다.

기약도 없는 긴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이
들이 뜨거운 눈물로 포옹했다. 2001년 5월
13일, 마지막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헤어진
오빠들과 소녀들은 그저 “기다려줘서”, “돌
아와 줘서 고맙다”는 말로 서로를 위로했다.

17년 만에 재결합 무대가 성사된 1세대 아
이돌 그룹 H.O.T.의 콘서트가 13·1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2018
포에버 하이파이프 오브 팀에이저스 콘서
트'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깊어가는 가을밤,
바람도 제법 쌀쌀하게 불었지만 다섯 '오빠'
들과 10만 '소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밤하
늘을 흰색 물결로 수놓았다.

● “단지 널 사랑해~”…1990년대로 떠난 추
억여행

첫 공연이 열린 13일 공연장 일대는 공연
시작 10시간 전부터 '흰색 우비' 부대가 점
령했다. 큼지막한 검정 글씨로 '클럽 H.O.
T.'라고 쓰인 우비를 입은 팬들은 일제감치
줄을 서고 공연이 열리기만 기다렸다.

공연이 시작되자 다섯 멤버들은 17년 전
그때로 돌아갔다. 당시 활동했던 무대의상
을 그대로 입고 '전사의 후예'를 시작으로
'늑대와 양' '열맞춰' '아이야' '우리들의 평
세' '행복' '위 아 더 퓨처' '캔디' '빛' 등 히트



17년 만에 흰색 풍선의 물결이 일어났다. 그룹 H.O.T.가 13·1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2018 포에버 하이파이프 오브 팀에이저스 콘서트'를 열고 10만 팬들과 뜨겁게 재회했다.

곡을 열창했다. 토니안은 당시 트레이드마
크였던 금발을 위해 염색했고, 문화준과 강
타는 갈머리, 가위손 등을 다시 선보였다.

'캔디'는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됐다. 장
우혁의 병거지 모자, 토니안의 파란색 고
글, 문화준을 닮은 기즈모 인형이 등장하
자 팬들은 환호했다.

멤버들의 세월의 흔적(?)은 숨길 수 없
었지만, 강타의 가창력, 장우혁의 춤실력
등은 여전했다. 솔로 무대를 통해서 저마
다 매력을 과시했다.

공연이 열린 올림픽주경기장은 이들이
마지막 콘서트를 연 곳이라 멤버들은 여러
감정이 교차한 듯했다. 문화준은 “17년 만
에 같은 장소이지만 너무 오래 걸려서 돌
아온 것 같다. 2001년 제가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무대에
다시 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
서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토니안은 “지금 이 순간이 실감이 나지 않
는다.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감격했다. 장우혁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이렇게 많은 팬들 온 것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고, 내년이면 어느덧 마흔 살
이 되는 막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재원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꿈
만 같다”고 팬들에게 허리를 숙였다.

● 완전체 가능성? “영원히 함께 하자”

공연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5개의 LE
D화면에는 '#2019'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
에 앞서 개별 솔로 무대를 통해 디지털 싱

글곡 'HOT KNIGHT'를 공개한 토니안은
“어쩌다보니 제 신곡이 나오게 됐다. 다섯
명의 음악이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은 준비
가 덜 된 상황”이라며 “그날이 오는 날까
지 제 음악도 사랑해달라”고 말했다.

토니안의 말과 내년을 기약하는 메시지
가 이들의 공연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이 공연을 시작으로 완전체 가능성
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강타와 문화준도 “늦었지만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도 자주 이러
게 모이면 좋겠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
고 말했다.

이들은 내년 초 한 차례 더 추가 공연을 계
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와 시간
등은 논의 중이다. 이정연 기자 anjoy@donga.com

세금 탈루 '판빙빙 후폭풍'…한류사업 막히나?

중국, 연예업계 엄격한 통제 분위기
한류 콘텐츠 합작사업 쉽지 않을 듯

중국의 톱스타 판빙빙이 탈세 혐의로 거
액의 벌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관련 사태가
현지 한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
려가 나온다. 중국 당국이 엔터테인먼트업
계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통제 및 관
리를 시작한 분위기여서 더욱 그렇다.

6월 이후 넉 달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판



판빙빙

빙빙이 최근 탈세 혐의
로 중국 당국의 구금 조
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
졌다. 이에 따라 판빙빙
은 145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판빙빙은
한 영화에 출연기로 하
면서 이면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
았다. 현지 엔터테인먼
트업계 일부 관계자들
이 그동안 세금 탈루의
한 방식으로 이런

계약을 맺고 현금을 주고받았다는 건 공공
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이
엔터테인먼트업계 전반의 납세 문제와 관련
해 면밀한 관리를 시작한 분위기다.

최근 한국을 찾은 중국의 한 영화관계자
는 14일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현지 분위기는 매우 움츠러든 상황이다”
고 밝혔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관련해 신규 투자나 제작이 모두 멈췄다”
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분위기가 한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미 한국과 중국 측이 계약을 맺고 진행
해온 부분은 큰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합작이나 투자 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3월 신문·방송·출판·
영화 등에 대한 검열 및 관리 등을 기존의
국가신문출판판권총국에서 당 선전부로 이
관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해왔다. 2016년 한국 정부
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한한령으로 현
지 한류가 직격탄을 맞아 여전히 주춤한 상
황이다. 중국 영화관계자는 “스타를 비롯
한 한류 콘텐츠가 다시 중국 대중에게 폭넓
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
였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명품 브랜드 비버리 힐즈 폴로 클럽

피로를 흡수하는 신발, 걸을수록 편안해진다!!

한리플 걸어도 발이 편안한 새로운 개념의 기능성 건강슈즈

ALL IN ONE (울인원)

발의 형태교정 깔창 특허/악취제거 깔창 특허/미끄러방지 밑창 특허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폴로클럽에서 인도어와 아웃도어활동이 가능한 전천후 울인원 천연가죽 남성화를 출시하였다. 기존의 트레킹화에 기능성과 디자인을 보강하고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신을 수 있는 일명 만능 신사화가 탄생한 것이다. 쿠션감이 좋은 인솔을 내장하여 장시간 걷는 것은 물론 등산, 트레킹이나 험한 작업, 운동등이 가능하며 직장인들의 일상화로도 인기가 높으며 신고 벗기 편한 고급 원터치버튼을 내장하여 견고함을 더욱 보강하였다. 100%천연 소가죽을 사용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뿔치창을 내장하여 심한 운동이나 작업시에도 충격을 흡수하여 발이나 발목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또한 특허받은 초강력 미끄러방지 밑창을 채택하여 무리없이 등산이나 트레킹이 가능하며 산업현장이나 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에서도 미끄러워 걱정없이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다.

NAVER 검색결과 전수테크소핑 등 추천하고

제품 하자시 6개월 무상 A/S

사이즈 :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 280mm

울인원 신사화의 강력한 6중 구조도

- 100% 천연소가죽 외피
- 자세교정을 위한(특허) 용수철이 내장된 지압층
- 통풍이 탁월한 모슬라이트(특허)
- 쿠션이 좋은 러셀스 충격보완재
- 충격을 흡수하는 피아면층
- 미끄러방지 뿔치창

(특허 제 1-0987107호)

모델명 PA-3 (브라운)

신사가 신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신발, 안전하다! 편안하다! 우아하다!

정사이즈로 제작되었으며, 가볍고, 견고하며, 튼튼하다!!

- 100% 국내 장인의 손길로 제작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편안한 착용감
- 100% 천연소가죽, 탁월한 내구성
- 뒤틀림, 미끄러짐 방지하는 뿔치창
- 원터치 록(LOCK) 버튼, 신고 벗기 편함
- 특허받은 깔창의 자체 교정 효과
- 용수철이 내장된 지압봉이 발을 건강하게
- 3중 특수소재가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
- 향균, 방취, 통풍 기능으로 발을 쾌적하게
- 정장부터 등산복까지 어울리는 다기능화

1컬레 228,000원 → 128,000원 (택배비 무료배송)

제품구입 문의전화 1566-1788 (토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우리는행 : 1005-301-396749 예금주 (주)진수테크

※ 신용카드 2~6개월 무이자 할부혜택!

울인원 기능성 신사화로 워킹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껴보세요!
3D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시 발의 피로감 감소!!
특허받은 모슬라이트 깔창으로 통풍 원할 및 발냄새 제거에 탁월!!

모델명 PA-1 (블랙)